



채동현
뽕굽는 쉼프의 꿈 대표

공간활용을 위한 PC 판넬

<진행 / 김민정 zenith@mbaker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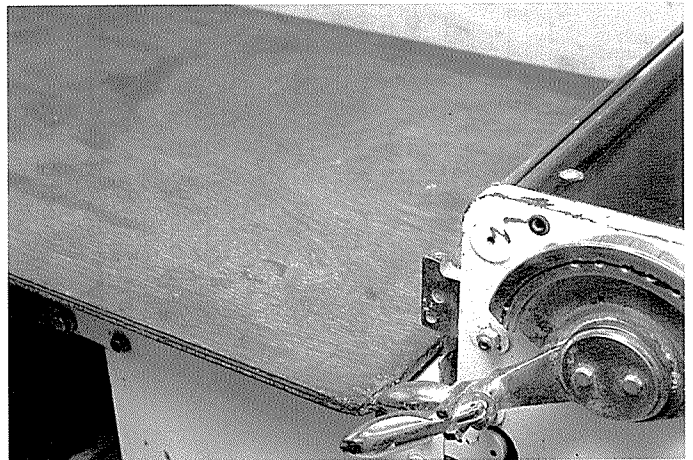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작업 공간이 좁아 불편한 경험이 있다. 공장이 좀 더 넓었으면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여분의 공간을 작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현명할 듯 하다.

공장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파이롤러. 그냥 두기엔 아까운 작업공간이다. 파이롤러의 양 날개의 높이가 작업대로 이용하기에 적당하다. 물론 이미 적지 않은 공장에서 파이롤러의 양 날개에 나무 판넬을 올려놓고 작업대로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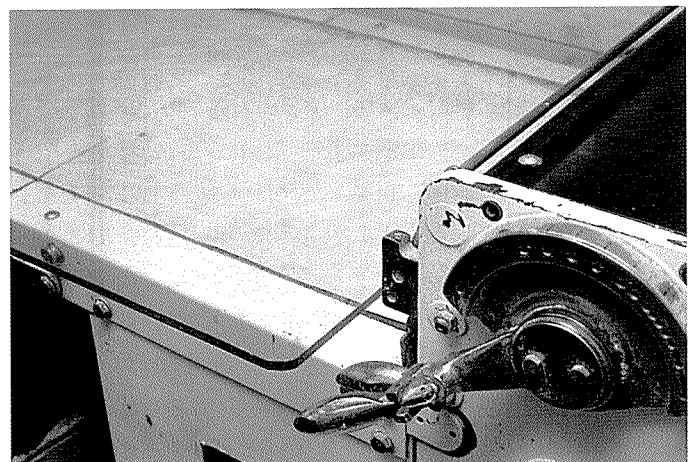
하지만 나무 판넬은 열과 물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작업 후 물로 자주 닦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나무 결이 일어나기 쉽고 세균이 번식할 우려도 높다. 그렇다고 아까운 공간을 놓칠 수는 없는 일. 나무 판넬 대신 PC 판넬을 이용한다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PC, 일명 방탄용 플라스틱을 파이롤러 양 날개에 올려놓으면 만주나 쿠키, 샌드위치 작업대로 변신한다. PC는 공구상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각 공장의 파이롤러 양날개의 크기대로 맞춤 수 있다. 2개에 약 6~7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

PC는 충알도 막을 만큼 단단하고 열에 강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뜨거운 철판을 내려놓거나 칼을 이용한 작업을 해도 상하거나 상처가 염려가 없다.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생적으로도 좋다.



▲ 파이롤러 위에 나무 합판을 놓고 작업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나무가 물에 닿으면 일어날 염려가 있고 물기가 잘 마르지 않아 지저분해 지는 단점이 있다.



▲ 나무 합판 대신 파이롤러 위에 PC(방탄용 플라스틱)를 얹고 작업대로 활용하면 쿠키나 만주 작업을 할 수 있다. pc는 열에 강하고 단단함으로 작업성도 높다.